

K리그 시즌 개막 '잠정 연기'

프로축구연맹 긴급 이사회

29일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연기
연맹 "국민·선수단
우선 보호 위한 조치"
26일 미디어데이도 취소

프로축구 2020시즌 K리그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오후 2시 신문로 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K리그 개막 경기는 29일 예정돼 있었으며, 대구·경북 개막 경기는 이미 연기 조처한 바 있다. 대구·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개막 일정을 변경하며 대응했지만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전체 일정을 연기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었고, 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잠잠해지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연맹은 "최근 심각 단계에 접어들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국민과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점,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

하고 있는 점,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군부대의 외출과 외박이 통제되는 등 전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연맹은 "코로나19 여파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변경된 리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K리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R리그와 K리그 산하 유스클럽이 출전하는 K리그 주니어의 개막 역시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0시즌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와 아카데미 신인선수 교육과정, 외국인선수 교육과정 등 선수단 참석 행사도 전면 취소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구단들의 홈경기를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치를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뉴시스

"가장 우수한 체육회로 만들자"

유인택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본격 업무 돌입



유인택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사진)은 24일 임직원들과 상례례를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유 처장은 이날 직원들과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변화"를 강조하며 전북체육회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체육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유 처장은 "전직원이 소통하고 합심해 전북체육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정강선 회장의 체육 철학과 공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택 사무처장은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로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과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KBS레슬링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기자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男 프로농구, 코로나19 여파 '無관중' 가능성

KBL, 오늘 긴급 이사회간담회 열고 정규리그·플레이오프 잔여 일정 등 논의

국내 스포츠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서리를 맞고 있다. 남자 프로농구가 여자 프로농구에 이어 무관중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긴급 이사회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잔여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전으로 인해 휴식기를 가진 KBL은 28일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여자 프로농구가 무관중 경기에 돌입했

고, 프로배구가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위의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 한국과 태국의 국가대표 경기도 무관중 상태에서 열렸다. KBL은 앞서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인 '보이스 포 KBL'과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를 잠정 연기했다. 2군리그인 D리그는 지난 10일부터 관중 없이 치르고 있다. 핸드볼리그는 확산을 우려해 아예 시즌을 조기에 종료했고,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둔 프로축구 K리그는 긴급이사회를 통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V-리그 5라운드 MVP에 비에나·다우프 선정

여자부, 오늘 KGC인삼공사-IBK기업은행서 시상

남자부, 28일 삼성화재-대한항공전서 시상 진행

도드람 2019~2020 V-리그 5라운드 MVP로 남자부 대한항공의 비에나, 여자부 KGC인삼공사의 다우프가 선정됐다. 남자부에서는 기자단 투표 30표 중 총 11표 (한선수 6표, 정지석 5표, 나경복 3표, 김규민 1표, 마테우스 1표, 오은열 1표, 기권 2표)를 획득한 대한항공 비에나가 지난 2라운드에 이어 두 번째 라운드 MVP를 수상하게 됐다. 비에나는 5라운드에서 공격종합 1위, 서브 2위, 득점 3위를 기록하며 팀의 5라운드 전승에 앞장섰다. 여자부에서는 기자단 투표 30표 중 총 16표

(강소휘 9표, 러츠 3표, 기권 2표)를 획득한 KGC인삼공사 다우프가 5라운드 간 득점 1위, 블로킹 2위에 이름을 올리며 팀의 후반기 도약에 힘을 보탤다. 5라운드 MVP 시상은 오는 28일 대전 충무체육관(삼성화재-대한항공)에서 남자부가 진행되며 여자부는 25일 충무체육관(KGC인삼공사-IBK기업은행)에서 실시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황의조, 2경기 연속골로 시즌 6호골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26R서

보르도, 생제르맹에 3-4로 패배

황희찬, 빈과 경기서 공격포인트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황의조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골을 터뜨리며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황의조는 2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

르크 데 프랑스에서 벌어진 파리 생제르맹과의 2019~2020 리그앙 26라운드에서 선발로 나서 경기 시작 18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디종전에서 골맛을 황의조는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6번째 골이다. 황의조는 코니크 세트피스에서 토마 바시치의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연결해 골맛을 봤다. 최근 기록한 3골을 모두 머리로 만들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보르도는 황의조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3-4로 패했다. 보르도는 9승8무9패(승점 35)로 12위에 머물렀다. 선두 파리 생제르맹은 21승2무3패(승점 65)로 2위 마르세유와 승점 차를 13으로 벌였다. 오스트리아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잘츠부르크)은 오스트리아 빈과의 경기에서 1-1로 팽팽한 후반 25분 다카의 득점을 도우며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로 리그에서 8번째 도움(6골)이다. 잘츠부르크는 2-2로 비겼다. /뉴시스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 한반도 첫 수도의 위상과 고창의 고품질 농특산품을 의미
- 하늘에서 바라본 고창읍성 지형을 담고 농생명과 연관 있는 육각형 엠블럼 디자인
- 고창 청보리의 순수한 자연을 표현한 골드그린 컬러
- 고창에서 발견된 추사 김정희체를 집자한 전통과 현대미의 조합

